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 년 7 월 9 일

CUOMO 주지사 사이버 테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학생들을 사이버 테러 뿐 아니라 괴롭힘, 왕따,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개선된 보고 체계, 수사, 개입, 훈련, 방지 등의 방법으로 학교가 괴롭힘 관련 사건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안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학교측은 학생이 사이버 테러 또는 기타 형태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학구에서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유해한 행동을 종지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며 표적이 되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법안은 또한 교사들과 행정자들이 괴롭힘과 기타 유해한 행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의 개선을 도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는 뉴욕주의 모든 학생들이 교실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하며 새로운 법안은 뉴욕주 학교들이 성공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의거해서 학교들은 가족들과 지역사회 및 경찰과 협조해서 괴롭힘, 왕따와 차별 등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포괄적인 법안을 도와준 다수당 대표 Skelos, Silver 의장, 그 밖에 법안을 지지한 사람들과 옹호자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주 의회 다수당 대표 Dean G. Skelos 는 "오늘 통과된 상기 법안은 사이버 테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교당국과 가족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정서 안전을 도모하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협력한 Saland 상원의원, Ranzenhofer 상원이원, Cuomo 주지사 및 의회를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의회 의장 Sheldon Silver 는 "협박, 위협, 괴롭힘 등은 학교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학교측이 위해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방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Cuomo 주지사를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Korean

Stephen Saland 상원의원은 “오늘날 학생들은 사이버 세계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징, 이메일 또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서 사이버 테러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는 항상 협박, 괴롭힘 또는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법안을 통해서 사이버 테러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저해할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학교당국에 보고해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지사의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보여준 지도력과 O'Donnell 의회 의원은 의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의 도모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상원의원 Michael Ranzenhofer 는 “사이버 테러는 21 세기의 문제이지만 아직도 20 세기의 법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법규는 청소년들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가 이러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Daniel O'Donnell 의회 의원은 “아동들은 학교에서 안전을 걱정하고 괴롭힘 또는 사이버 테러를 걱정하거나 차별과 욕설의 대상이 될 경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우리 아동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저는 Dignity for All Students 법규를 칭송하며 주지사가 본 법안을 지지하고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망을 확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는 특히 유해한 괴롭힘의 형태입니다. 기술을 통해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원격으로 학교 밖에서 많은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때로는 익명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 테러와 낮은 자존감, 가족 문제, 성적 문제, 학교 폭력 및 비행과 장기적으로는 우울증, 약물 남용, 폭력적 충동과 학교 결석 등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테러와 기타 괴롭힘에 의한 자살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만약 방치하고 있으면 괴롭힘은 더 심각한 폭력과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9 년 7 백만명 이상의 12 세에서 18 세 사이의 미국 학생들 (해당 연령 집단의 28%에 해당)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으며 6%에 해당하는 백오십만명의 학생들이 교내 또는 학교 밖에서 사이버 테러의 대상이 되어습니다. 2011 년 뉴욕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1 년동안 약 18 퍼센트의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으며 16 퍼센트의 학생들이 이메일, 채팅, 인스턴트 메시징, 웹사이트, 문자 또는 기타 전자 방식으로 사이버 테러를 당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법규는 다음 조항을 통해서 사이버 테러를 해결하게 됩니다.

사이버 테러 발생시 학교측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신법규에 의하면 학교당국은 학교 환경을 위협하고 학생의 성적 또는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건강에 저해가 되거나 학생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교내 또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Korean

사이버 테러 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절차

상기 법규에 의하면 학교 당국은 사이버 테러, 괴롭힘, 차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조사 보고서 전담 교직원 배정, 즉각 보고 및 조사 착수, 확인된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한 경우 경찰과의 협조, 괴롭힘 방지 전략 개발 및 학교 관련인 대상 학교 정책 통보를 포함합니다.

교직원 대상 사이버 테러 확인 및 방지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설정

상기 법규는 현 교직원 및 증서 또는 면허증을 신청중인 신입 교사와 행정가가 괴롭힘, 왕따, 사이버 테러 및 차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필요한 교육 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법 규 2013 는 7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